

1. 복습: 금식의 목적

(1) '외식' 하는 죄악의 가면을 벗게 하기 위해

-형식에만 익숙해진 신앙은 죄의 고질병인 이기심을 볼 수도 없고 더더욱 그 뿌리를 뽑지 못하게 한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신앙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깊은 내면을 보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내면을 돌아 보지 못한 채 가시적인 형식과 모양만 갖춘 삶을 '회칠한 무덤 같은 삶' 이라고 했다.

허우대는 좋은데 안은 형편 없는 삶이다. 서로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다.

눈감고 아옹하는 삶이다.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 상징된 라오디기아 교회의 고질병도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기만의 상태가 아니었던가!

-모든 성격 장애, 관계적 역기능성(dysfunction)의 뿌리에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기심에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다. 아집과 고집이란 이기심이 있다. 늘 자기 생각만 올다고 고집하는 아집이다. 독선과 교만으로 이끌려 지게 하는 이기심이다. 또는 나만 편한려고 하는 이기심이 있다.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고통을 주어도 나는 우선 편한려고 하는 이기심이다. 이런 이기심은 그동안 살아온데로 그래서 익숙해 저서 편해진 데로 살려고 하는 이기심이다. 생각,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하는데 이리 저리 변명을 드러내 놓으면서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의 편리, 혜택을 조금이라도 양보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기심이다.

여기에는 성장이 없다, 변화가 없게 만드는 이기심이다. 또는 내가 기분내키는데 감정을 표출하고, 생각나는데로 말하는 이기심이다. 이것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끄는 이기심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해 버리고 뺄어 버려서 실수가 많고 상처를 많이 주는 삶이다. 스스로의 감정이나 말을 억제하고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미성숙한 충동에 중독되게 만드는 이기심이다.

-피상적, 외부적, 또는 의식적으로만 하는 신앙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제대로 마음이 터치되지 통회하고 회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히 금식을 하며 철야기도를 하며 법석을 피워도 또 한편으로는 나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율배반적이 한 사람 속에서 공존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든다.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의 내면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에서 부터 멀리 떠나 있는 죄인인지 도저히 모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막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깊이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한다.

(2) 생활 속에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흉악의 결박-불의(injustice)의 사슬에 묶여진 자들에게 자유를 줌

-명예의 줄-무거운 인생의 짐(bondage)을 진 자들에게 자유를 줌, 중독, 의무감, 후회감의 무거운 줄을 끌러 줌.

-압제(oppression) 당하는 자-강제로 억누름 당하며 사는 자들에게 자유를 줌.

-멍에를 끄는 것-무의미하고 허무한 삶에 종속되고 노예가 되어 사는 삶에서 자유를
좁

-배고픈 사람, 방황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하라-고통하는 자들에게서
격리된 삶을 살지 말라! 함께 호흡해라!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라! 그들의 가족이
되라! 돌보라! 외면하거나 등한시하지 말라! 네 가족처럼 대하라!

-벗은 자를 입힘-수치심, 죄책감으로 벗겨벗은 자들을 은혜, 용서, 치유로 옷을
입게 함, 영적으로 벗겨벗은 이에게

-가족을 돌아보는 삶-가족, 친척들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삶

2. 봉사의 목적, 결과,

(1)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하여

(2)하나님의 성품을 몸으로 배우기 위하여

(3)이기심을 뿌리뽑고(3 절)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얻기 위해(10 절)

“오락을 찾아 얻으며” -----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3. 봉사의 축복

(1)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됨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8 절

(2)전인적 치유와 회복을 체험함-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는 것(성화)이 곧
치유되는 길임. 곧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 치유와 회복 그 자체임.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8 절

(3)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됨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8 절

“The glory of the Lord will be your rear guard.”

(4)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됨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9 절상단.

(5)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나의 부리시는 종이 되는 감격의
역사를 체험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9 절 하단

(6)내 자신과 타인에게 불필요한 멍에(부담, 죄책감), 손가락질(정죄, 판단, 심판),
허망한 말(쓸데 없는 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말, 말쑥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쓸데 없는 풍수, 풍운지설, 팔자소관에 따른 말, 미신에 기초한
말들...)에서부터 자유함.

(7)어두운 곳을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게 됨, 지혜의 빛, 하나님을 아는 빛,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갈 길을 보여주는 삶, 빛을 반영하는 삶.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0 절

(8)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됨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11 절

(9) 물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충족되는 오아시스를 경험함,
역설적인 인생이 됨,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평강을 체험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됨, 항상 넉넉한 푸르름, 풍요로움으로 인도됨,
축복의 통로가 됨.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